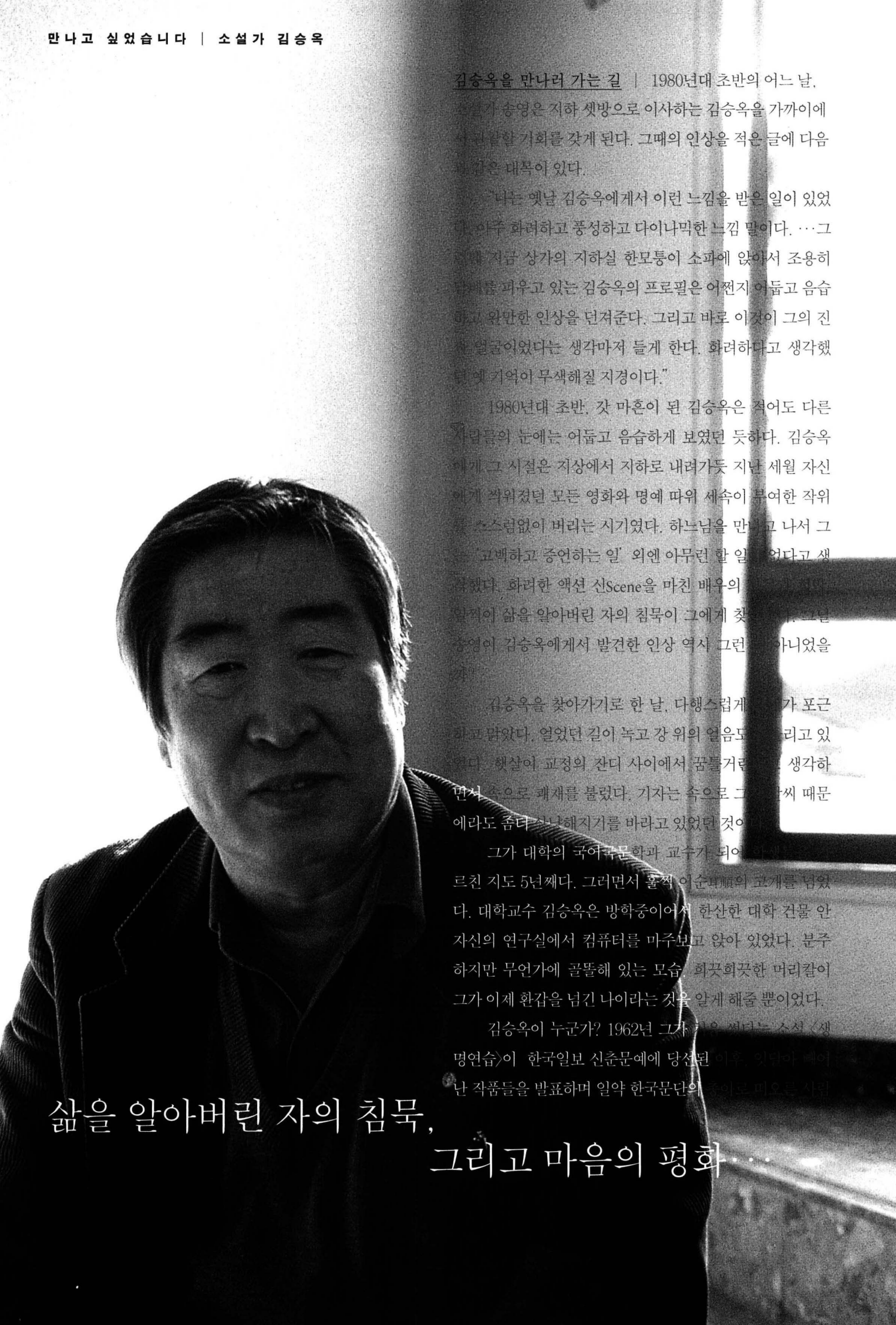

삶을 알아버린 자의 침묵, 그리고 마음의 평화…

김승옥을 만나러 가는 길 | 1980년대 초반의 어느 날, 소설가 송영은 지하 셋방으로 이사하는 김승옥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때의 인상을 적은 글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나는 옛날 김승옥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은 일이 있었다. 아주 화려하고 풍성하고 다이나믹한 느낌 말이다. …그런데 지금 상가의 지하실 한모퉁이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김승옥의 프로필은 어쩐지 어둡고 음습하고 완만한 인상을 던져준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의 진짜 얼굴이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화려하다고 생각했던 옛 기억이 무색해질 지경이다."

1980년대 초반, 갓 마흔이 된 김승옥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둡고 음습하게 보였던 듯하다. 김승옥에게 그 시절은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듯 지난 세월 자신에게 씌워졌던 모든 영화와 명예 따위 세속이 부여한 작위를 스스럼없이 버리는 시기였다.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고백하고 증언하는 일' 외엔 아무런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화려한 액션 신Scene을 마친 배우의 [illegible] 일찍이 삶을 알아버린 자의 침묵이 그에게 찾[illegible]. 그날 송영이 김승옥에게서 발견한 인상 역시 그런 [illegible] 아니었을까?

김승옥을 찾아가기로 한 날, 다행스럽게 [illegible]가 포근하고 맑았다. 얼었던 길이 녹고 강 위의 얼음도 [illegible]리고 있었다. 햇살이 교정의 잔디 사이에서 꿈틀거린[illegible] 생각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기자는 속으로 그[illegible]씨 때문에라도 좀더 상냥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되어 [illegible] 르친 지도 5년째다. 그러면서 훌쩍 이순耳順의 고개를 넘었다. 대학교수 김승옥은 방학중이어서 한산한 대학 건물 안 자신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분주하지만 무언가에 골똘해 있는 모습.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그가 이제 환갑을 넘긴 나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뿐이었다.

김승옥이 누군가? 1962년 그가 [illegible] 소설 〈생명연습〉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 잇달아 빼어난 작품들을 발표하며 일약 한국문단의 총아로 떠오른 사람

아니던가. 그때 이미 그는 한국문학의 정점에 서 있었다.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등의 수작을 연이어 발표한 김승옥은 '전후 문학의 음울한 분위기와 허무 의식을 일거에 떨쳐버리고 내용과 형식 양면에 걸쳐 한국문학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근대적 인간의 개인성을 포착하는 뛰어난 위트와 지적 세련을 동반한 그의 문체는 한국문학의 성숙을 앞당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김승옥에게는 곧, 신세대 문학의 기수, 감수성의 혁명을 가져온 작가, 전후 문학 최고의 천재작가라는 레테르가 붙었다. 그는 반복과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문학의 갱생을 책임질 유일한 작가로 부상했고 그의 이름은 빠르게 유포돼 곧 한국문단의 신화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의 영광은 이처럼 요란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극적인 바가 있었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그가 지켜오고 있는 길고 긴 침묵은 오히려 이런 화려한 영광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바가 없지 않다.

김승옥은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했다. 그가 밝힌 모든 연보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 그가 일본 땅에서 태어난 연유는 이렇다. 당시 김승옥의 부친은 일본 유학생 신분으로 도일渡日해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일본 오사카에 이민와 있던 한의사의 딸이었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김승옥이 태어난 것이다. 해방이 되자 부친은 가족을 데리고 귀국하여 오랜 세거지였던 전라남도 순천에 정착하게 된다. 그때부터 순천은 김승옥의 정신적 고향의 원형으로 자리잡는다. 하지만 그곳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김승옥의 부친이 여순반란 사건 당시 이웃주민들과 함께 희생되었던 것. 그때 겨우 여덟 살의 나이였던 김승옥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처럼 맛있는 것이나 사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가 초등학교 일학년 땐데, 그때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지요. 아버지는 불쑥 들어오셔서 내게 용돈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꽤 액수가 컸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소설의 주요한 모티프로 차용하는 김원일이나 이문열과는 또 다른 작가였던 것이다.

책방 한 구석에서 모든 책을 읽다 | 어떤 평자들은 김승옥의 문학적 정체성을 4·19와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의 소설에서 정치적 의식을 일목요연하게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의 소설은 오히려 환상적이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다. 그가 해방 후 한글로 교육받은 첫 세대이고 4·19의 경험을 통해 근대적 각성을 이룬 세대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가 소설을 통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개인적인 것', 그리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더 가깝다.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 〈무진기행〉의 그 유명한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문장을 쓸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처럼 서정적이고 매혹적인 문체를 구사하는 소설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의 감수성은 어디에서부터 연원하는 것일까.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6·25가 터진 1950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경상남도 남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죠. 피난지 남해에서 우연히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소설을 읽게 되었어요. 또 김래성 씨의 〈청춘극장〉 제1권도 그곳에서 읽었죠. 햇볕만 뜨거운 여름철, 아주 무료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소설책을 읽으면서 세계에 대해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됐죠. 넓은 세계를 한 권의 책 속에서 발견한 것이에요. 그때의 충격이 나한테는 상당히 컸습니다."

김승옥은 전황이 호전돼 고향인 순천에 돌아와서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을 던져놓고 책방에 가서 소설을 읽었다고 한다. 책방 주인은 김승옥이 매일같이 찾아오자 저 녀석은 으레 저런 놈이려니 하고 내버려두었다고.

"서점 주인 눈치가 보여서 오줌이 마려운 것도 참고 책 한 권을 다 읽은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자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읽고 나니까 책방에는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었습니다. 소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저는 평생 소설을 애독하는 독자가 되어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점심 시간이 되었다. 김승옥은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자는 제의를 정중하게 물리치고

기자를 교직원 식당으로 안내했다. 소박하면서도 자상한 그의 일면을 엿본 것 같아 플라스틱 식판에 밥과 국을 담으면서도 기자는 몹시 흐뭇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다.

책을 많이 읽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교지를 편집하기도 했던 그는 1960년 서울대학교 불문학과에 입학한다. 불문학을 지망한 이유 역시 문학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영어나 독일어는 고등학교에서 배웠으니 새로운 언어인 불어를 배워서 외교관이 되어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었다는 것이 그가 밝히는 불문학 지원의 이유다.

"막상 대학에 들어와서 보니까 외교관이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나밖에 없었습니다.(웃음) 모두 문학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故人이 되었지만 문학평론가 김현이라든가 김치수 같은 동기들 모두가 온통 다 문학을 하겠다는 분위기인데 나 혼자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밝히는 소설 창작은 그야말로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였다. 1961년 겨울 군입대를 앞둔 그는 문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소설을 썼고 이를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했던 것. 신춘문예 당선 통보가 있던 날 김승옥은 이청준과 함께 순천에 머물고 있었다. 그날,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했던 이청준은 낙선했고 김승옥만 당선 통보를 받았다. 그는 군입대 계획을 보류하고 당선 상금으로 다음 학기에 등록, 학교생활을 이어간다. 김승옥은 대학 3학년 때인 1962년 김현, 김치수, 최하림 등과 〈산문시대〉라는 동인을 결성, 동인지를 내고 본격적으로 문학활동을 펼치게 된다. 〈산문시대〉에 그는 〈乾〉, 〈幻想手帖〉, 〈확인해 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등을 발표하는데 발표한 작품마다 문단의 화제가 된다.

이후 그에게 돌아온 명성은 그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김승옥은 1965년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김승옥은 꼭 서울, 일구육사년 겨울이라고 읽는다)을 발표하는데, 이 작품은 약관 스물넷의 나이인 그에게 제 10회 동인문학상을 안긴다.

그는 동인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세상의 허술함에 놀라고 싶을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겸손해 하기도 했지만 이미 그때 그의 마음 속에서는 한국문학에 대한 나름의 웅지가 펼쳐지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육안으로 하느님을 보다 | 이후 소설창작, 시나리오 각색, 영화제작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그는 1977년 제1회 이상문학상 수상을 끝으로 문학 현장으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된다. 그는 지친 것처럼 보였다. 게으르고 불성실한 작가라는 오해를 받기까지 했다. 그러던 1981년 그는 운명적으로 하느님을 만난다.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해요. 1981년 4월 26일 새벽이었죠. 대리석으로 빚은 듯한 커다란 손이 내 명치를 어루만졌어요. 내가 '누구냐' 고 물으니 또렷한 한국말로 '하느님이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이후 1년에 한 번씩 하느님은 내 앞에 나타나시거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 체험이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데,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으면서 간증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경험한 사실만을 말할 뿐인데 말이죠."

그는 사실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종교란 윤리적인 생활을 하자는 사회적인 운동이라고만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열성적인 신앙인이 되어 간증도 하고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을 때 그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느꼈을 당혹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는 현재도 틈만 나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에도 등록해 낮에는 대학교수로 밤에는 신학대학원의 학생으로 공부한다. 어찌 됐건 그는 평화로운 모습이다. 특히 대학 안의 교회 앞에서 사진촬영을 할 때는 밝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어떤 평화이건 그 평화를 얻기까지 그가 겪었을 몸안의 참화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얻은 평화를 쉽사리 비난하거나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 기자의 눈에 김승옥은 이제 더 이상 음습하고 암울하지 않게 보였다. 그는 평화라는 포근한 안개에 쌓인 모습이다.

끝으로 소설창작 계획에 대해 물었다.

"소설요? 우선 예전에 구상했던 소설들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는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특히 인간의 죄의식을 다룬 글을 쓰고 싶어요. 하느님을 알게 되면서 자연히 그런 관심을 갖게 됐죠."

그렇게 말하며 그는 다소 쑥스럽게 웃는다. 다시 한 번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 김도언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